

뵤메의 감성학을 통한 올라퍼 엘리아슨 공간의 지각적 분위기 체험 연구**

A Spatial Study about Olafur Eliasson's Emotional Atmospheric Experience of Gernot Böhme's Aesthetics

Author 장수민 Jang, Su-Mi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김개천 Kim, Kai-Chun / 정회원, 국민대학교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The atmosphere is a popular word in everyday life. There is often an atmosphere when we enter a particular place. As if to say, The mood is perceived as an emotional and subjective word. Atmosphere is subjective and there are different feelings, but there are definitely certain feelings that people can relate to. The researcher examines the question in the paper and analyzes how the atmosphere in the space could be explained. So I will research about Böhme's aesthetics which is called atmosphere, and analysis how his atmosphere is applied in nowadays art. So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s the notion of the atmosphere, not the atmosphere of rational perspective, it's about emotional and perceptual experiences. Therefore a connection about audience and arts is the most important focus in atmosphere. So the other purpose is Olafur Eliasson's Atmosphere, he is an artist about this perception. His work requires spectator intervention and participation to make it a perfect art. There is also a element in Eliasson's philosophy ,in which the perceptual experiences of visitor's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viewer, and eliminates the boundary as a perceptual expression.

Keywords 게르노트 뵤메, 감성학, 올라퍼 엘리아슨, 지각, 분위기, 체험, Gernot Böhme, Aesthetics, Olafur Eliasson, Perception, Atmosphere, Experie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은 저마다의 분위기(Atmosphere)가 있다. 본 논문은 분위기라는 단어의 미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해보고 이에 대한 공간적 사례 연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분위기를 주제로 담고 있는 게르노트 뵤메(Gernot Böhme)의 감성학을 고찰하고 관람객의 분위기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작품 공간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분위기가 더 이상 애매모호한 관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공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성학에서 설명하는 관람객의 경험은 공

과 관람객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그 경계를 지각적인 표현으로 없애는 엘리아슨의 작품과 공통점이 있다. 엘리아슨의 작품은 관람자의 개입과 참여를 통하여 온전한 예술이 되기 때문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장에서는 감성학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한 개념인지 그 정의와 역사적 내용을 고찰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분위기적 특성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뵤메의 저서인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를 기반으로 분위기의 연출 요소들, 즉 빛, 소리, 움직임, 재료를 분석하고 공간에서는 그 요소들이 분위기로써 어떻게 표현되는지 나누어본다. 4장에서는 분위기가 관점을 대입해 엘리아슨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분위기를 사례 분석한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ck@kookmin.ac.kr

** 이 논문은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22B-2013-0012-671)

1) ctpress, 김윤성, 올라퍼 엘리아슨 : 세상의 모든 가능성, 2017, <http://ctpress.kaist.ac.kr/>

2. 뵤메의 감성학에 대한 논의

2.1. 감성학: 분위기적 지각

감성학은 미학(Aesthetics)의 본래 어원에서 시작한다. 미학은 감각이라는 뜻의 아이스테시스(Aisthesis)로, 이는 18세기 독일 철학자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이 처음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성과는 분리되고 낮게 평가되던 감성에 의의를 가지고 이를 “인간 감각능력의 고유성과 인식력”으로 논2)하고자 했다. 그의 주장을 토대로 삼아 게르노트 뵤메(Gernot Böhme)는 근대 미학이 추구하던 이성의 합리성보다는 감성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주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에게 있어서 감성이란 인간(신체) 자신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과, 자신이 존재하는 그 곳에서 어떠한 상태(신체적 지각)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신체적 경험3)이다. 또한 뵤메는 ‘지각의 근본적 현상이 바로 현존의 분위기적인 감지’4)이며, 분위기(Atmosphere)가 그 근본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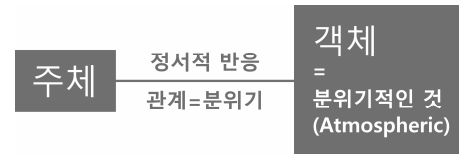
2.2. 역사적 맥락에서의 감성학

뵤메의 주장은 신체성을 등한시한 근대 미학을 비판하면서부터 시작한다. 그 중 20세기 전반기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과 1960년대 이후 네오아방가르드 운동5)이 일어나던 시기의 시각중심주의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시각중심주의로 지배당했던 당대 예술계는 눈 이외의 신체기관들을 시각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다.6) 뵤메는 이러한 근대적 시점이 더 이상 미학화기의 대상이 다양해진 시대의 예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20세기를 지나온 예술사적 흐름의 변화를 “인간 몸의 재발견”과 “감성의 복권”으로 설명하며 이를 미학의 중심과제로 부각시킨다.7) 이에 뵤메의 감성학은 현대 예술 비평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8)

2.3. 분위기(Atmosphere)에 대한 이해

뵤메는 분위기적 지각을 분위기(Atmosphere)와 분위

기적인 것(The Atmospheric)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한다. 분위기는 객체로부터 주체가 정서적 반응을 받는 동안 느끼는 관계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이고, 분위기적인 것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뜻한다. 분위기적인 것의 설명은 뵤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다. 공간은 저마다의 감성(mood)이 존재한다. 감성은 관람자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외부인 공간에 있다. 공간은 그가 갖고 있는 특정한 성격으로 채워진다. 관람자는 그 감성적 성격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며 그 공간과의 정서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9) 뵤메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감각, 즉 신체적 경험 속에 있다.



<그림 1>
분위기(Atmosphere)와 분위기적인 것(Atmospheric)

2.4. 분위기의 특성

(1) 분위기의 연출 가능성

뵤메는 분위기의 연출 가능성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는 예술 분야 뿐 아니라 소위 대중문화라고 하는 일상적인 삶 속 미적 경험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디자인이라는 예술과 일상이 조우하는 새로운 영역을 등장시켰으며 뵤메는 이러한 현상을 “실재적인 것의 심미화” 과정이라10) 말한다. 뵤메는 분위기의 생산(Production of Atmospheres)에 초점을 맞춘다. 분위기는 더 이상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생산될 수 있다. 특히 예술, 디자인, 건축 등 심지어 마케팅의 분야11)가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미적 노동’이라고 한다.

(2) 분위기의 성격과 행위의 주관성

분위기는 인간인 주체와 공간인 객체를 분리하지 않는다. 분위기는 주체가 객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행위이지 순전히 주관에서 환기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객관적인 것에서 촉발되는 것도 아니다.12) 다시 말하면 분위기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주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3)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관계성

분위기의 상호관계성은 분위기적인 것(Atmospheric)인 형태적 이미지(Body Image)와 주체와 객체가 상호적으로 반응하는 상황, 즉 분위기에 체화된 이미지(Embodied Image)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실존적인 감정들 속에 균형을 잡는 것13)이다. 분위기는 주체와 객체의 정서적 관

2) 김정석, 같은 논문, 2015, p.39
3) 이에리, 페터 훔토르의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개념의 특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2015, p.7
4) Gernot Böhme, Aisthetik. Vorlesungen über Ästhetik als allgemeine Wahrnehmungslehr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2001, p.42, 김정석 같은 논문, p.54 에서 재인용.
5) 김정석, 연극 공연의 감성학적 연구: 괴르노트 뵤메(Gernot Böhme)의 감성학을 중심으로, 한국연극교육학회, 2015, p.38
6) 조수진, 1960년대 미국 ‘네오아방가르드’ 미술에 나타난 몸의 전략, 이화여대 대학원, 2013, p.6
7) Gernot Böhme, Aisthetik. Vorlesungen über Ästhetik als allgemeine Wahrnehmungslehr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2001, p.7, 김정석, 같은 논문, p.38에서 재인용.
8) 심혜련, 감성학에서의 감성적 지각 문제에 관하여: Aura, Uuncanny, 그리고 Atmosphere를 중심으로, 전북대, 2010, p.250

9) Christian Borch, 같은 책, p.96 참고
10) 김정석, 같은 논문, p.43
11) Christian Borch, 같은 책, p.91
12) 임성훈 외 3명, 현대 독일 미학, 이학사, p.200

계이다. 분위기는 감성을 느끼는 행위로, 이는 서로 교류하는 역동적인 유체이다.¹⁴⁾

(4) 일상의 타자성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굳이 분위기를 분석하며 느끼려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장소는 일상적인 사물들과 사건들로 구성되고 이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곳이 된다. 이-푸 투안의 저서 ‘공간과 장소’를 보면 ‘친밀한 경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이어서 그것의 형태를 부여할 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종종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¹⁵⁾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 친밀감을 잠시 뒤로 하고 낮설게 바라보면 그 곳은 분명 그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뵈메의 분위기는 예술 작품처럼 주체로부터 떨어져있는 개별적 객체보다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공감적 위력을 지닌 미적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공간에서의 분위기

뵈메는 자신의 저서인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에서 ‘분위기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도 하다.’¹⁶⁾며 공간의 연출 가능성을 주장한다. 또한 뵈메는 이를 구현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실제 연출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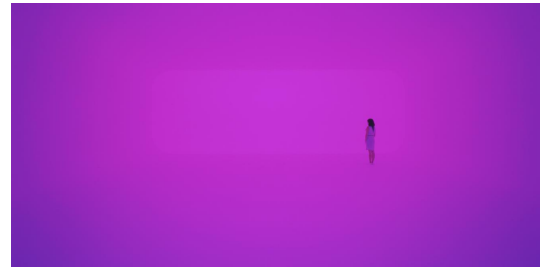
3.1.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요소들

(1) 분위기의 연출 요소 분석

1) 빛

빛은 공간을 창조한다. 뵈메는 밝은 빛이 빈 공간(Clear Space)을 만든다고 말한다. 빈 공간이란, 막혀 있지 않고 공간의 3차원적 경계가 흐려지는 곳을 의미하며,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감을 경험하는 곳이다.¹⁷⁾ 이러한 행위는 비물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빛을 관람자 스스로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상호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그 예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이다. 뵈메는 그의 작품을 통해 빈 공간 속 분위기 경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형식의 전시 공간, 즉 물질적인 사물을 관람하는 곳이 아닌 빛과 같은 비물질적인 재료로 공간이 창조되는 곳이다. 빛이 창조한 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주체가 그 빛을 가까이 혹은 멀리 마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느끼는 분위기의 폭이 다양하게 넓어질 수 있다.



<그림 2>
Breathing Light, 2013

2) 소리

뵈메는 소리로써 분위기가 표현되는 것을 음향 공간의 심미적 정복(The Aesthetic Conquest of Acoustic Space¹⁸⁾)이라고 한다. 존 케이지(John Cage)의 음악이 뵈메의 것과 흡사하다. 존 케이지는 우연히 발생하거나 혹은 의도되지 않은 소리라 하더라도, 소리는 모두 음악이라고 생각했다.¹⁹⁾ 로아라토리오(Roaratorio)가 그 예이다. 이곡은 소리의 물성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아일랜드의 고전 노래인 피네건스 웨이크를 해체하여 만든 곡이다. 케이지는 모든 의미, 모든 단어, 모든 소음, 모든 분위기가 공존하는 세계를 보여 준다.²⁰⁾ 뵈메는 테이프 레코딩, 일상적 소리, 거리, 자연, 공장의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다²¹⁾고 말한다. 분위기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공간 속을 경험하는 관람자에게 효과적인 지각을 일으킨다. 공간 속 소리는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나타나게도 하며, 사라지게도 한다.²²⁾ 소리는 주체에게 분위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움직임

신체의 움직임이란 분위기의 필수불가결적 요소이다. 움직임이 연출하는 분위기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몸적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휴고 쿨하우스(Hugo Kükelhaus)는 ‘Experience Fields’를 고안하여 중력에 반응하는 몸의 균형,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들을 지각하게 하는 설치물들을 만들었다.²³⁾ 이 작품에서 볼

13) Gernot Böhme, Architectural Atmospheres, Birkhauser, 2014, p.93
14) Gernot Böhme, Urban Atmospheres: Charting New Direction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Birkhauser, p.43
1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p.220
16) Gernot Böhme,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Routledge, 2017, foreword p.10
17) Gernot Böhme, 같은 책, p.209

18) Gernot Böhme, 같은 책, p.169
19) 네이버 지식백과, John Cag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7598&cid=44533&categoryId=44533>
20) Yes24, John Cage, <http://www.yes24.com/24/goods/17463477>
21) Gernot Böhme, 같은 책, p.169
22) Gernot Böhme, 같은 책, p.170
23) Newyorksocialdiary, Hugo Kükelhaus,
<http://www.newyorksocialdiary.com/guest-diary/2012/century-of-t>

수 있는 의의는 주체로서의 관람자가 의도된 연출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분위기를 감지한다는 것이다. 비메가 요구하는 예술의 과제인 분위기적 연출 효과는 움직임으로 증폭된다. 이는 현대 사람들에게 온전한 감각 즉 자신의 신체를 지각함으로 자신이 환경 안에 현존함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²⁴⁾ 된다.



<그림 3>
SENSORIUM Balancier Scheibe

4) 재료

공간 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분위기를 감지할 때 빠르고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²⁵⁾ 재료에 관한 작품 사례는 비메의 저서에 서술되지는 않으나, 공간적 예시를 통해 재료가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의 특성을 설명한다.

‘도시 속 두 개의 서점이 있다. 한 곳은 노란빛이 섞인 갈색 목재 보가 천장을 지나가는데, 그 표면은 헤졌고, 투박하다. 그 곳은 여유로워서 사람을 더 머물러 있게 한다. 다른 한 서점은 유리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대리석 복도가 있고 모든 종류의 서적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책을 찾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빠르다. 철제와 금속, 유리, 그리고 대리석이 주된 재료다.’²⁶⁾

두 공간은 모두 서점이지만 각각에 쓰인 재료로 인해 한 곳은 편안한 분위기의 서점이, 다른 한 곳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 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지각은 전혀 다른 성격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두 서점을 찾는 이용자들의 취향에 따라 두 공간을 방문하는데 있어 우선순위가 갈릴 것이다. 이는 재료가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공간의 성격을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재료로 인한 공간의 분위기적 아우라 때문이다.²⁷⁾

(2) 소결

빛	빛과의 거리감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
소리	분위기 표현과 전달의 매개체
움직임	관람자의 몸적 감각을 통해 느낌
재료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됨

분위기를 연출하는 요소들을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를 토대로 분위기가 실제 공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각각의 요소들에 중점을 둔 사례를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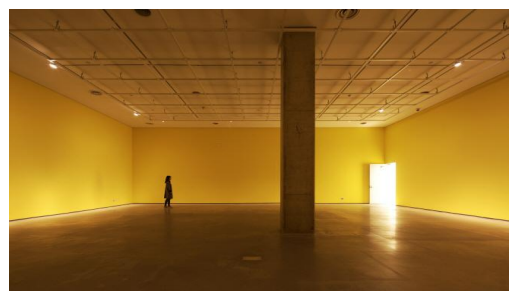
3.2. 분위기 연출 요소들의 공간화



<그림 5>
Sou Fujimoto, Forest of Light, 2016

이 작품은 숲 속 분위기를 연출한 전시 공간이다. 핀 조명용을 사용해 빛을 나열하고 배경음악을 사용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간의 주제가 되고 있는 빛은 관람자의 입장에서 공간을 멀리서 바라보면 바닥에 맺히는 빛들이 패턴처럼 보이나 조명 아래에 서면 관람자 스스로 빛을 경험하는 친밀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빛	핀조명을 규칙적으로 배치함으로 명암과 그림자를 연출하여 숲 속 분위기를 느끼게 함
소리	'Shifting Forest light'이라는 배경 음악을 삽입함. 작가가 연출하고자 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음악을 통해 증폭시켜 표현함
움직임	관람객이 움직임에 따라 빛을 느끼기도 하고 어둠을 지나가기도 하면서 숲 속의 빛을 느낄 수 있음
재료	4면에 유리벽을 설치하여 빛과 형상이 반사됨, 공간 분위기 특유의 투명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무한한 공간감을 형성함



<그림 6>
장민승, 정재일, Light Chamber, 2016

he-child-growing-by-design-part-ii

24) Gernot Böhme, 같은 책, p.115

25) Gernot Böhme, 같은 책, p.142

26) Gernot Böhme, 같은 책, p.142 요약

27) Gernot Böhme, 같은 책, p.141

VOID전의 한 섹션인 이 공간은 오직 빛의 연출과 작곡한 곡만으로 전시가 구성된다. 특히 작곡가 정재일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음악이 소리가 아니라 그 장소를 공기처럼 감싸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소리가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 순간의 공기를 디자인해보는 것이 이 전시의 의도라고 했다.

빛	빛으로 전시주제인 VOID를 표현함
소리	주제를 가진 소리로 빈 전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광활한 분위기를 만들어냄
움직임	빛으로 행태를 만들어냄. 그들 스스로 작품의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함
재료	-



<그림 7>
Peter Zumthor, Steilneset Memorial, 2012

이곳은 마녀사냥을 당했던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공중에 떠있는 복도를 관람자들이 지나가면 그로 인한 움직임과 외부의 바람 때문에 공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 때 일렁이는 공간은 화형 당시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관람자들은 이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인 관람 뿐 아니라 온 몸의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

빛	화형을 상징화 시킨 붉은 조명을 통해 상황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음
소리	외부와 내부의 재료로 인한 소리로 엄숙한 추모 공간의 특성이 부각됨
움직임	관람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공간의 일렁임으로 상황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낌
재료	천을 사용한 일렁임의 효과를 주고, 나무는 촉각적이고 정각적인 효과를 줌

3.3. 연출된 공간에서의 분위기 특성

분위기 연출 요소와 그 요소들이 공간화 되었을 때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부분적 함축을 통한 이미지 연상

작품	연출	부분적 함축	이미지 연상
Forest Of Light	빛	핀조명	숲 속 햇빛
Light Chamber	소리	음악	전시관 속 Void
Steilneset Memorial	움직임	관람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공간의 반응	화형의 상황을 생생하게 연출함
Seed Cathedral	재료	시각적 촉감 가벼운 물성	생명력



<그림 8>
Thomas Heatherwick, Seed Cathedral, 2010

이 작품의 외피에서 느껴지는 특징은 생동감이다. 촉감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외피의 물성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관람자로 하여금 공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빛	광섬유를 포함하는 아크릴 막대가 자연 빛을 흡수해 빛으로써 내부 효과를 줌
소리	-
움직임	-
재료	투명한 아크릴 막대가 빛에 반사되면서 공간을 채우고 있고, 외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흔들림으로 유기적인 건물처럼 보이게 함

첫 번째 특성은 분위기를 대상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품과 빛의 표현만으로도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분위기의 연출성이 분위기를 부여하려는 원형적인 공간 성격의 부분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특징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연출 요소의 특성이 된다.

(2) 지각적 자극을 통한 감성 전달

작품	연출	지각적 자극	감성 전달
Forest Of Light	빛	명암을 따르는 이동	고요함, 산책
Light Chamber	소리	빛과 소리	광활함
Steilneset Memorial	움직임	과정이 있는 동선	처절함
Seed Cathedral	재료	촉지적 자극	송고함

지각적 자극이란 신체적 감각을 통한 인식을 통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뜻이다. 관람객이 공간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지각적 자극은 그 분위기적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위기로써 느끼고 정서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과도 같다.

(3) 요소의 극대화를 통한 신체 감지

작품	연출	요소의 극대화	신체 감지
Forest Of Light	빛	빛의 반복, 무한함	자유로운 동선
Light Chamber	소리	음악의 고조	빛을 관찰하거나 따라감
Steilneset Memorial	움직임	빛이나 동선 같은 상황적 표현들의 축약	과정이 있는 동선
Seed Cathedral	재료	건물 표면 막대의 양과 긴 길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촉각적 감지

요소의 극대화는 부분적으로 함축된 분위기적 요소가

28) 이예리, 같은 논문, p.11

막대한 양의 반복이나 점층적인 감정의 고조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관람객은 이러한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분위기에 따라 스스로 움직여서 체험한다.

4. 분위기 관점에서 본 올라퍼 엘리아슨 (Olafur Eliasson) 의 작품 연구

4.1.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분위기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은 분위기를 빛, 색상, 온도, 파장 등을 통해 표현하는 작가이다. 그는 관람자가 그의 공간 속을 체험하고 지각하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작품은 관람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완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²⁹⁾ 그는 ‘Architectural Atmospheres: On the Experience and Politics of Architecture’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감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분위기는 멈춰있거나 얼어있을 수 없는 역동적인 매개체들이며 독립된 상태가 될 수 없다.’³⁰⁾ 고 말한다. 그는 분위기를 궤도(trajectories)라고 표현하는데, 궤도는 흐름들을 뜻하는 말이다. 그는 뫼비의 주장처럼 분위기의 연출 가능성에 동의하는데, 분위기는 생산 가능한 것³¹⁾이라고 말하며 이는 역동적인 행위 주체여서 사람에게 여운을 주는 매개체, 즉 실제적인 장치(Reality Machine)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4.2. 분위기 관점에서 본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

(1) 빛의 연출: Contact

이 작품에서 빛은 지평선에 걸쳐 있는 태양과 그 환경적 분위기를 연상하게 한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친밀감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



29) 박성연,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작품에서 관람자와 작품의 상호관계, 건국대학교, 기초조형학연구 18권 2호, 2017, 205p.

30) Christian Borch, Atmospheres, Art, Architecture: A Conversation between Gernot Böhme, Christian Borch, Olafur Eliasson & Juhani Pallasmaa, Basel, 2014, p.93

31) Christian Borch, 같은 책, p.93

32) Olafur Eliasson, Contact <http://olafureliasson.net/archive/artwork/WEK109128/contact#slideshow>

작품 개요	
작품명	Contact
년도	2014-2015
장소	Foundation Louis Vuitton, Paris
작품 설명	
이 작품은 지평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착시 공간이며, 굽은 벽과 수평선을 통해 관람객들이 거대한 구체 위에서 있는 듯한 긴장감을 줌	
작품 키워드	
수평, 공간의 가능성, 구(Sphere), 광도, 어두움, 에워싸임, 탈안정감 ³²⁾	
분위기 특성 분석	
부분적 함축	이미지 연상
수평선에 스며든 빛을 기다란 조명 효과로 함축시켜 표현함	일출 혹은 황혼
지각적 자극	분위기 연출
명암,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광활한 원형 공간	탈안정감, 햇빛이 수평선에 스며들 때의 분위기
요소의 극대화	신체 감지
빛이 명암의 극대화로 표현됨. 구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명암을 통한 시각적 확장으로 관람객들은 스스로 공간 속을 거닐면서 신체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음

(2) 소리의 연출: Ventilator

이 작품은 소리로 인한 움직임 유발한다. 왜냐하면 천장에 추처럼 매달린 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확정적으로 움직일 때 관람자에게 긴장감을 주고 그로 인한 움직임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키워드는 바람이다. 바람이 가깝고 멀어지는 촉감, 운동감, 거리감 등은 관람자가 지각적 체험을 하는 작품이다.



작품 개요	
작품명	Ventilator
년도	1997-2015
장소	Moderna Museet, Stockholm
작품 설명	
천장에 팬을 설치하여 관람자의 움직임을 유도함	
작품 키워드	
구심력, 불안정, 에너지, 기대감, 공간을 직시함, 추, 불확정성, 바람 ³³⁾	
분위기 특성 분석	
부분적 함축	이미지 연상
추로 매달은 팬	바람, 태풍, 위협감
지각적 자극	분위기 연출
바람으로 인한 촉각적 자극	긴장감
요소의 극대화	신체 감지
팬을 불확정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 관람자의 움직임을 극대화시킴	관람자 스스로 작품과 상호작용하여 오브제를 이해하고 공간감을 익힘

(3) 움직임의 연출: Vær i vejret

바람에 의해 부는 방향이 변하는 수증기의 특성을 이용해 관람자가 오브제와 상호 관계하여 촉각적 체험을 하게 한다.

33) Olafur Eliasson, Ventilator, <http://olafureliasson.net/archive/artwork/WEK101688/ventilator>



시각의 효과로 인한 자극	자유, 여유로움
요소의 극대화	신체 감지
스케일감을 극대화시켜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장치를 강조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함 천장에 설치된 거울을 관람객 스스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됨	관람자들은 작가가 의도해놓은 실제 장치(Reality Machine)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제 피약별 아래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음

5. 결론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위기는 이성과 감성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사유하는 것이 아닌 신체적으로 느끼는 지각적 체험의 특징을 가진다. 둘째, 분위기를 느낀다는 것은 객체만을 분석함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을 느끼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셋째, 분위기는 ‘미적 노동’ 즉 현대 일상과 예술의 접점이 되는 디자인, 대중문화와도 같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분위기가 연출 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넷째, 분위기의 연출 요소는 비매의 저서를 참고로 크게 빛, 소리, 움직임 그리고 재료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엘리아슨 역시 자신의 작품에 분위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성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연출된 공간에서의 분위기적 특성을 도출한 부분은 분위기의 연출 가능성의 근거를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가진다. 또한 제시된 분위기의 공간적 연출 요소의 특성인 3.3의 키워드들은 논증의 과정 속에서 비매의 의견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앞선 사례의 특징들만을 연결해 서술했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주관적 언어가 등장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 연구를 통해 분위기가 연출 가능한 요소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오늘날 예술이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그 동향을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작품 개요	
작품명	Vær i vejret
년도	2016
장소	Ordrupgaard Kunspark, Denmark.
작품 설명	
스케일이 큰 원형 조형물에 노즐을 설치하여 순간적인 수증기를 만들어냄. 관람객들은 조형물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며 작품을 온몸으로 지각함	
작품 키워드	
원, 공동체, 안개, 움직이는 물, 바람, 근원, 촉각, 행동, 반응, 거닐다. ³⁴⁾	
분위기 특성 분석	
부분적 함축	이미지 연상
수증기의 물성을 활용	자연, 안개
지각적 자극	분위기 연출
몸에 닿는 수증기, 냄새, 바람	수증기의 가벼운 물성이 상쾌한 정서를 느끼게 함
요소의 극대화	신체 감지
사람의 3배 정도 되는 스케일의 조형물에 인공 수증기를 연출함	조형물 사이를 거닐며 작품 자체를 지각함

(4) 재료의 연출: The Weather Project

그는 전시장에 대형 인공 태양을 설치해 사람들에게 피약별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촉각으로 느끼는 물성이 아닌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을 표현해주는 작품이다.



작품 개요	
작품명	The Weather Project
년도	2003
장소	Tate Modern, London
작품 설명	
전시장 안에 인공태양을 설치해 피약별 아래에서 느낄 수 있는 특정한 분위기를 느끼게 함	
작품 키워드	
존재, 안개, 인공자연, 민주주의, 올라다름, 내려다봄, 빛, 시간을 보내다, 태양, 날씨 ³⁵⁾	
분위기 특성 분석	
부분적 함축	이미지 연상
태양이 가지는 속성을 축약해서 빛이라는 재료를 통해 비물질적으로 재현함	피약별
지각적 자극	분위기 연출

참고문헌

1. Gernot Böhme, The Aesthetics of Atmospheres, Routledge, 2017
2. Gernot Böhme, Urban Atmospheres: Charting New Directions fo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Basel, 2014
3. Gernot Böhme, Architectural Atmospheres, Christian Borch, Basel, 2014
4. Christian Borch, Atmospheres, Art, Architecture: A Conversation between Gernot Böhme, Christian Borch, Olafur Eliasson & Juhani Pallasmaa, Basel, 2014
5. Gernot Böhme, Aisthetik. Vorlesungen über Ästhetik als allgemeine Wahrnehmungslehr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2001
6. ctpress, 김윤성, 올라퍼 엘리아슨 : 세상의 모든 가능성, 2017,

34) Olafur Eliasson, Vær i vejret, <http://www.olafureliasson.net/archive/artwork/WEK109433/vaer-i-vejret#slideshow>

35)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http://olafureliasson.net/archive/artwork/WEK101003/the-weather-project#slideshow>

<http://ctpress.kaist.ac.kr/>

7. Christian Borch, Atmospheres, Art, Architecture: A Conversation between Gernot Böhme, Christian Borch, Olafur Eliasson & Juhani Pallasmaa, Basel, 2014
8. 김정석, 연극 공연의 감성학적 연구: 괴르노트 뵘메(Gernot Böhme)의 감성학을 중심으로, 한국연극교육학회, 2015
9. 조수진, 1960년대 미국 ‘네오아방가르드’ 미술에 나타난 몸의 전략, 이화여대 대학원, 2013
10. 심혜련, 감성학에서의 감성적 지각 문제에 관하여: Aura, Uuncanny, 그리고 Atmosphere를 중심으로, 전북대, 2010
11. 이예리, 페터 춥토프의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개념의 특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5
12. 박성연,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작품에서 관람자와 작품의 상호관계, 건국대학교, 기초조형학연구, 18권, 2호, 2017
13. Juhani Pallasmaa, Space, Place, and Atmosphere: Peripheral Perception in Existential Experience, Basel, 2014
14. 임성훈 외 3명, 현대 독일 미학, 이학사, 2017
1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16. Artsy, Alfred Sisley,
<https://www.artsy.net/artist/alfred-sisley>
17. 장민승, 정재일, <https://youtu.be/Fdy5Ir8Z-2Y>
18. <http://www.olafureliasson.net/>
19. 네이버 지식백과, John Cag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7598&cid=44533&categoryId=44533>
20. Yes24, John Cage, <http://www.yes24.com/24/goods/17463477>
21. Newyorksocialdiary, Hugo Kükelhaus,
<http://www.newyorksocialdiary.com/guest-diary/2012/century-of-the-child-growing-by-design-part-ii>

[논문접수 : 2018. 01. 15]

[1차 심사 : 2018. 01. 29]

[2차 심사 : 2018. 04. 17]

[게재 확정 : 2018. 05. 15]